

정론

김철의 여성들은 강하다

북방의 겨울밤은 사납다. 예고없이 쏟아져내리는 폭설에 얼음강산이 되었던간 제철소의 깊은 밤 신들미를 조여매고 트랙을 나서는 너인들은 웬일인가. 식구들의 단잠을 깨울새라 대문을 조용히 열고 얼음베개 밟으며 나가는 너성들, 이집지집에서 그렇게 대문들이 열린다. 솜옷에 목수건을 든듯히 매고 솜눈길을 헤쳐가는 너성들이 바로 직장에서 하루과제를 다하고도 밤에는 밤대로 제철소의 바쁜 일손을 대신해주고있는 김철의 너성파의지현대원들이다.

북방의 눈바람을 헤치며 김책체철련합기업소를 또다시 찾아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주체철용광로를 앞세우고 거연히 일떠서는 김철땅에서 남모르는 구슬땀을 바치고있는 너성들의 수고를 높이 평가하시었다.

함복도너자들이 내밀성이 있고 정말 강하다고 하시면서 불을 다루는 로동제급의 뒤에 강한 조선너성들이 있다는것을 뜨겁게 알려주시신 위대한 사랑에 화답하여 이 시각 김철의 불길은 더욱더 화상제타오르고있다.

1

김철의 너성들, 이들은 세상에 제일 강한 조선의 너성들이다. 평양으로부터 2천리, 이 나라의 제일 높고 험한 산줄기들이 뿔어진 조국의 북방에서 김철로동제급의 안해들이 살고있다. 고난과 시련을 끝까지 헤쳐며 남편과 자식들을 용광로안에 떠밀어주고 차저용과도속에서 철덩이들을 건너며 쇠물가마를 끓여온 로동제급의 안해들이 김철땅에서 살고있는것이다. 위대한 명도자 김철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는 허리띠를 조이며 창조한 우리들, 우리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발휘하여 대고조국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며 우리 땅에 있는 우리의 것을 가지고 우리의 힘이나는 사회주의탄생을 건설해나가야 합니다.》 쇠물가마밑에는 보이지 않는 밀불이 있다.

우리 조국이 강해지는 비결은 그 밀불로부러 시작된다. 김철이 일어나야 나라가 강해진다는것을 피로써 새긴 선구자들이기에 김철의 너성들은 잠이 적어졌다.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세계를 향하여 솟구쳐오르는 김철이 되자면 주체철용광로의 동음이 높이 울려야 한다는것을 심장으로 깨달은 선구자들이기에 김철의 너성들은 하는 일도 많았다. 누가 시켜서 나선 길이 아니었다. 김철의 주체철소식을 기다리시는 장군님을 그리며 한밤이 겹겹이 열두명으로, 백명, 이백명으로 불어난것이 너성파의지현대원들이다.

직종은 각이하다. 보수2직장 통계원도 있고 기술준비실의 도면관리직과 로동보호물자공급원도 있으며 열동직장의 열관리공도 있다. 55살부터 18살에 이르기까지 나이도 각각인 들켜대에는 수십명의 조선로동당원들이 있으며 직명원들과 청년동맹원들도 있다. 밥가마와 쇠물가마는 다르다. 쌀을 일어 밥가마에 안치는것은 너자가 하는 일이며 용광로에서 쇠물을 끓이는것은 사내대장부들이 하는 일이다. 이 나라의 맑고맑은 집들가운데 쇠물집의 머느리로 사는것만도 인민의 사랑을 받을 일이다. 하다면 이들이 한가정을 돌보는 가정부인만으로 사는것이던가. 아니다. 지현대의 대부분이 경제도표관에 이름이 울려있는 기업소의 종업원들이다. 철의 기차 종업원으로서 말은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모르고 제철소에서 더 할수 있는 일을 찾아나선 그 마음 얼마나 고결한가. 처음엔 이들도 보통너인들이었다. 직장에서 돌아온 밤이면 다음날 폐식을 생각하며 잠 못 들던 쇠물집의 어머니들, 머느리들, 딸들이었다. 지난해 12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김책체철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신 날 저녁이었다.

보수2직장 통계원 한옥련동무가 동무들에게 말을 꺼냈다. 《정글야, 명옥야, 너희들 지금 무슨 밭에 사나?》 50대 당원의 물음이었다. 무슨 밭에 사는가? 그들은 생각에 잠겼다. 너자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제철소너자들이 할 일은 더 많다. 하루로동을 하고 집에 들어서면 쇠가마에 걸은 남편의 빨래를 해야 한다. 밤교대에 나가는 남편의 밤도 지어주고 아이들의 숙제공부도 봐주어야 한다. 너자인 우리가 제철소에서 그 이상 또 무슨 일을 할수 있는가. 의아하게 보는 그들에게 한옥련동무는 말하였다. 《우리 장군님께서 김철에 불길을 지켜 주시었는데 너자라고 조용히 살수 있겠나?》 그 물음이 너성들의 심금을 중- 울리었다.

정말 그렇다. 하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할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동무들에게 한옥련동무는 속삭였다. 《어찌서 할 일이 없겠니. 용해장에 비자루만 들고 서있어도 밥일하는 남자들에겐 큰 힘이 될게다.》 《미자루를 들고?》 《그렇지 않나!》

그렇다. 쇠물가마를 끓이는 곳에서는 비자루를 들고 서있어도 큰일이 된다. 처음에는 네명이 비자루를 들고 용광로앞에 나갔고 열후후에는 열두명이, 몇달후에는 수십명이 비자루를 들고 용해장에 나갔다. 비자루부대가 온다고 반겨주는 용해공들의 즐거운 목소리가 그들에게는 더없이 기쁘게 들리었다. 하지만 이들은 비자루만 든것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비자루를 들고 쇠물길을 쓸어주던 너인들이 차츰차츰 어려운 현상으로 자리를 옮긴것이다. 비자루를 들던 손으로 무연알판을 갈라내었으며 현대화건설에 필요한 벽돌도 저날았다. 너성파의 지현대가 겨나른 벽돌만 해도 수천, 열간일연직장을 현대화하는데도 파괴지현대가 계기는 뚝이 대단하였고 주체철생산체제를 도입하는 투쟁에서도 파괴지현대가 대신해주는 일감이 많았다.

너성의 어깨는 연약하다. 하지만 그 연약한 어깨에 큰 짐을 지고 조국의 밀불로 살려야 하는 마음은 불을 다루는 난정들을 크게 울리었다. 대장부들도 약해질 때가 있다. 때로는 어려운 난관앞에 주춤할수도 있다. 그러나 앞에 서 부추이고 뒤에서 떠밀어주는 너성대오의 힘찬 고무가 있었기에 주체철을 위하여 싸우는 김철로동제급은 더우기 약해질수도 주춤할수도 없었던것이다. 김철의 너성들은 오늘의 투쟁을 금지높이 추켜하기 위하여, 아들딸들에게 어머니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몇몇이 말해주기 위하여 전투기록도 남기고있었다.

우리 시도 쓰자, 금전강발전선너성들도, 백두산선군정권발전선너성들도 그렇게 시를 쓰지 않았는가, 느건바를 그대로 시에 담아보자. 이렇게 약속하며 시집을 묶었다. 예술소품공연도 하고 후방사업도 하였다. 가정생활에 지장을 줄수 있기때문에 물질적지원만은 허용할수 없었다는 당조직의 의견도 이들의 곁을 땀 흘려 세울수 없었다. 수십명도 아닌 수백명! 당 조직에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밤길을 걷는 이용감하고 강한 너성대오에 명칭을 맡아주어야 한다는 문제가 트의결정되었다. 너성파의지현대라는 부름을 받아안은 그 날 너성들끼리대원들은 당조직에 걸철히 부락하였다.

《우리에게 지원대기발도 있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되어 너성파의지현대의 기발이 만들어졌다. 나라의 쇠물을 끓이는데 구슬땀을 바치고 노래도 시도 바칠수 있는 힘과 재능을 장그려 바쳐가는 이 대오는 자기를 사랑하고 내세워 주는 당조직으로부터 《너성파의지현대》라고 새긴 붉은 기발을 엄숙히 수여받았던것이다. 강한것처럼 아름다웠었이 없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땅을 굳게 밟고 고난을 헤쳐온 모든 너성들에게 감사와 주고있다고 말씀하신것처럼 조선의 너성들은 강한것으로 하여 자기의 뚜렷한 얼굴을 가지고있다.

남편이 총대라면 우리는 총관이 되겠다는 신조를 보여준 군관의 안해들이 조선너성의 모습으로 력사에 남았것처럼 주체철용광로의 밀불이 될 각오로 떨쳐나선 김철의 너성들이 미례를 위하여 싸우는 조선너성의 모습으로 력사에 새겨지고있다.

하기에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김철의 현장에서 너성파의지현대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깊은 감동속에 들으시고 내가 그런 너성들을 두고 그냥 지나갈수 있는가, 그들을 어서 보자고 하시며 그렇게도 뜨거운 마음으로 걸음을 계속하셨었다.

폭풍같은 만세를 터치는 로동제급에서 쇠물집머느리들의 얼굴들을 애써 찾아보시던 위대한 어머니의 정다운 눈빛, 억세고 용감한 그 모습들을 또 보지 못하고 가시는것이 못내 서운하시어 김철의 너성들은 온 나라에 크게 자랑하자고 당부하고 또 당부하시던 장군님의 음성 얼마나 격정에 넘쳐셨던가. 세상에서 제일 강한것으로 하여 시대의 촉부속에서 싸인 김철의 너성들, 이들은 내 나라의 뜨거운 쇠물가마밑에 내 집의 따뜻한 밥가마가 있다는 철리를 달로써가 아니라 빛나는 삶으로 말해주는 조선의 참된 너성형명가들이다.

백두산을 닮아 강하고 회맹을 닮아 강하고 또 강한 위대한 장군님 품에서 역세게 성장하며 강성대국건설의 기초를 지키는 조국의 만머느리들이기에 시대의 높은 언덕에서 병사와 인민의 사랑을 받을 줄지높은 권리와 자격을 가진것이다.

2

인간이 강해지는데는 까닭이 있다. 우리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고난을 이겨냈다는 강제정신의 철학이 말해주는 것처럼 장군님과 뜻을 함께 하는 인간들은 언제 어디서나 강해지며 승리한다. 김철의 너성들은 명도자의 마음을 가장 뜨겁게 리해한 혁명의 선구자들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을 이끄시기에 김철은 반드시 일어선다는것을 굳게 믿고 김철의 새봄을 앞당겨가는 조국의 진날배들이다. 김철의 운명전환을 위하여 잠 못 이루

시는 장군님의 생각과 심장을 하나로 잇고 살기에 이들의 발자국은 보폭이 크다. 이들은 10여년전 그날 고난의 자욱이 력력한 김철의 구내길을 걸으시던 장군님의 무거운 발자국소리를 퍼눈물속에 감직한 제철소의 너인들이었다. 이들은 규모로 보나 생산량으로 보나 우리 나라에 김철만 한 금속공장은 없다고, 김철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생명선이라고 하신 장군님의 말씀에서 김철너성이 서야 할 자리를 찾은 너지대장부들이었다.

대대로 나가지면 물목길을 지나야 한다고, 비록스제철법이 가능하였는가에 대하여 머리를 기웃거리거나 이것저것 타산하면서 재지 말고 그 방법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립장을 가지고 끝장을 보아야 한다는 장군님의 말씀. 우리는 복스와 리혼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복스는 죽었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이 길에서 한걸음이 아니라 반걸음도 양보해서는 안된다고 하신 간곡한 당부름 가슴에 안고 사는 마음이었다.

복스때문에 괴망은 김철의 력사에 영원한 중지부를 찍어주시려는 우리 장군님의 단호한 결단이 김철의 너성들을 울리었다. 지난해 12월 김철땅을 또다시 찾으신 그날에 주체철용광로에서 뿜아낸 선철물을 소중히 보시면서 오늘은 후속을 보고 가자면 매일은 천원색을 보러 오겠다고 뜨겁게 약속하신 우리의 장군님.

우리의 원료로 끓는 쇠물이 열어나 나보고싶었으면 그처럼 뜨거운 말씀으로 주체철의 완성을 고무해 주셨으랴. 《우리는 쇠물끓이는 남편들 뒤바라지도록 잘하자요, 그리고 시부모공대도 더 잘하자요. 그래서 우리 장군님께서 바라시는 조국의 만머느리들이 되자요.》

김방 수물장에서 내린 길로 지현대에 달려나가는 너성도 있었고 누더리를 쓰지 못하는 남편을 눈여겨보고 지원대에 나가는 너성도 있었다. 제 한몸보다 용광로를 더 귀중히 여기는 이들의 마음을 리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 사람들의 뒤말이 들려올 때면 눈물이 쏟아져나오는것을 다잡지 못하는 안해의 손을 꼭 잡고 남편들이 속삭였다. 《일없소, 어서 나가요. 사람들이 당신을 리해 못하면 당신이 그들을 리해하면 되지 않겠소.》 쇠물집머느리에서는 남편들도 아들들도 한마음이였다.

《어머니, 내가 인민군대에 나가도 이 밥길을 그냥 걸어주세요. 어머니의 그 모습을 안으면 총린 마음이 더욱 든든해질거예요.》 조국보위초소로 떠나며 아들이 남긴 부탁을 생각하면 눈보라치는 밥길도 무섭지 않았고 100날, 200날도 걸어보이지 않았다. 이들도 자식을 가진 어머니들이고 너성들이었다.

때로 제집살림을 위한 배낭을 무겁게 진 너인들을 곁에서 볼 때면 불쑥 솟구치는 집격쟁이 마음이 어두워질 때도 있었다. 보통너성들이라면 백번도 주저앉을수 있는 이 길에서 서로서로 마음을 더욱 굳세게 해준 뜨거운 속삭임이 무엇이었던가. 《우리는 오직 장군님만 생각하자요!》 참으로 이것은 천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고귀한 말이었다.

마음속에 강철덩이가 들어앉은 너인들만이 입에 올릴수 있는 뜨거운 속삭임이었다. 김철의 너성들을 세상에서 제일 강하게 만든 힘의 철학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제국주의원수들이 김철이 주저앉을 날까지 정해놓고 폐제를 울리고있던 때 주체철에로의 행군나팔소리를 장엄하게 울려주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위대한 그 몸을 떠나 김철도 없고 조국도 없다는 강철같은 인생관이 든듯히 뿌리내렸기에 김철의 너성들은 남달리 담도 없고 인생의 목표도 높은것이었다.

우리 장군님께서 김철을 찾아오신 그날은 하늘도 맑았다. 백양나무우듬지에서 까치우는 소리를 들으며 출근길에 오르는 너인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출렁였다. 주체철용광로에서 쇠물이 점점 더 잘 익어가고있다는 용해공들의 목소리가 가슴을 설레이게 한것이었다.

우리 장군님께서 잘 익은 쇠물을 어서 빨리 보셨으면... 소리가 길어가는 이 간절한 소원을 헤아리신것인가. 경애하는 그이께서 정말로 제철소를 찾아주시었다. 《장군님! 오늘은 쇠물이 정말 멋있게 쏟아집니다.》

눈물에 젖어 삼가 아뢰이는 일군의 목소리에는 김철땅 담너로소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있었다. 《우리 장군님께서 주체철용광로에서 쏟아지는 붉은 쇠물을 보셨대요!》

애들처럼 발을 동동 구르면서 뛰치는 너인들의 목소리가 푸른 하늘에 높이높이 울려갔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구내길을 쓰다듬으며 너인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떨구었다. 《장군님... 김철의 쇠물을 보아주시어 정말 고맙습니다. ...》

너인들의 마음속에서 이런 뜨거운 고백이 울리고있다는것을 용해공들은 알고있었다. 기록하고 고마운 너성들의 사랑속에 쇠물을 끓이며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것이 꿈만 같아 역대우같은 사나이들이 주먹으로 눈금을 닦았다.

우리모두 매일은 더 일찍 일어나자요! 너인들은 뜨겁게 약속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김책체철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신 다음날 김철땅에는 메넬이 없이 눈이 요란히도 내리었다. 12월의 희한한 설경이었다. 무릎을 넘게 눈이 내린 제철소마을의 새벽문을 활짝 열어제끼며 너인들이 쏟아

져나왔다. 《우리 장군님께서 오신 날에는 주체철이 잘 익어 쏟아져내리니 오늘은 합박눈이 몇몇기도 쏟아져내려요! 하늘도 우리 김철을 축하해요.》 눈가래를 들고 기쁨에 넘친 합박도너인들의 청놀은 억양에 길가던 나그네들도 빙긋이 웃었다. 그 씩씩하고 명랑한 목소리에 아이들도 눈을 비비며 새벽잠에서 깨어났다.

눈을 치던 저 너인들의 손뼉에서 쇠물집합성이 차려지고 그렇게 새날을 맞이한 용해공들이 가슴을 찡크고 장군님 다녀가신 구내길따라 보란찬 출근길에 오르게 될것이었다.

하나의 식솔을 이룬 조선의 힘에는 무한한 원천이 있다. 위성을 쏘는단 위성을 쏘고 주체철을 만든다면 주체철을 만들어내고야마는 조선의 힘은 평범한 생활속에 깊이 뿌리박고있다.

총대를 켜 군인의 뒤에 훌륭한 어머니와 안해들이 있고 쇠장대를 켜 로동제급의 뒤에 훌륭한 어머니와 안해들이 있어 김철성민족의 힘은 날이 갈수록 커진다는 힘의 철학을 김철의 너성들이 보란듯이 증명하였다.

어떤 나라의 문필가는 이렇게 쓰곤하였다. 《우리 민족은 대대손손 두드려왔었다. 왜? 우리에게는 강철이 없었기때문이다.》

강철을 만들어내는 나라는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을 모시지 못한 민족은 강철이 많아도 노예가 되고 위대한 정신력을 가지지 못한 민족이 사는 땅에서 쇠덩이가 많아도 변명할수 없다. 너성들이 강해진 나라가 강해진다.

우리 장군님과 뜻을 같이하는 길에 남편들을 떠밀어주고 자식들을 세워주는 강한 어머니들이 아니라 집집에 있기에 내 조국이 강하고 주체의 사회주의가 끄떡없는것이다.

김철의 너인들이 역세게 추켜든 지원대기발은 이 나라 너성들과 공민들이 자기 살고있는 조국에 대하여, 조국에 바치는 자기의 구슬땀에 대하여 많은것을 들어키쳐보게 한다.

우리모두가 장군님의 한식술이라는것을 아는것도 중요하지만 장군님 식솔로서의 도리를 하는것은 그보다 더 중요하다. 한해가 저물어가는 시각에서 너내리는 현저지도의 길을 걸으시는 장군님의 어깨 위에서 무거운 짐을 덜어드리는데가 장군님의 한식술로 사는 우리모두의 망심의 파괘가 아닌가.

김철의 너성들처럼 빛나게 살자. 강하게 살자! 강성대국으로 부르는 주체철의 장엄한 출강조성을 마음에 안고, 북방의 새벽문을 여는 김철너인들의 발자국소리를 가슴에 안고 미래를 위하여 용감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었다.

유자녀들이 새 세복을 받아안던 날 어머니께서는 활기와 광만에 넘친 그들의 의지한 모습을 보시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며 부모들의 뒤를 이어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준비해나가도록 따뜻이 고무해주셨다.

승고한 동지적리력을 지니시고 혁명가유자녀들을 한몸에 안으시어 그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김정숙어머님의 뜨거운 사랑에 대한 감동깊은 이야기들은 오늘도 천만군민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며 전해지고있다.

본사기자 김 중 훈 적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까타르국가 추장에 축전을 보내었다

도 하 까타르국가 추장 셰이크 하마드 빈 할리파 알 라니전하

나는 까타르특별전에 즈음하여 당신과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과 협조의 늑대가 앞으로 계속 강화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할것과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 99 (2010)년 12월 17일

선군혁명령도업적을 통한 위대성교양

혁성군 월명리당원위원회에서 당원들과 농장원들속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혁명령도업적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실시하게 진행되고있다.

리당원회의에서는 모든 당세포와 근로단체 조직들에서 위대성교양을 위한 구체적인

강성대국의 찬란한 래일을 내다보며 창조희열에 넘쳐있는 김철의 여성들

본사기자 김 중 훈 적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김정숙 동무는 언제나 자기자신보다도 조국과 인민, 동지들을 먼저 생각하였으며 조국의 자주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쳤습니다.》

주제 36 (1947)년 8월 어느날 김정숙어머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대중군에 자리잡고있는 학원필시교사를 찾으신다.

당시 학원으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위해주신 조치에 따라 국내외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있던 혁명가유자녀들이 모여들고있었다. 학원으로 떠나시기에 앞서 어머니께서는 일군들에게 장군님께서서는 유자녀들이 모여 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잠도 자지 못하시었다고, 우리 아이들이 왔다는데 어서 나가보

원아들에게 베푸신 사랑

원아들에게 베푸신 사랑

원아들에게 베푸신 사랑

원아들에게 베푸신 사랑

원아들에게 베푸신 사랑

원아들에게 베푸신 사랑

원아들에게 베푸신 사랑

원아들에게 베푸신 사랑

본사기자

본사기자 김 용 진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높이 석탄중산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자

전투적인 작전, 혁신적인 일본새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해 펼쳐나선 2, 8 직 동정년탄광 일군들과 탄부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높다. 위대한 장군님의 련일따뜻한 손길과 함께 생산능력 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지대한 성과를 이룩한 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높이 새로운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얼마전 이곳을 찾은 우리는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고 다음해생산을 본뜬대고 내밀기 위해 작전과 지휘를 잘하고있는 일군들의 혁신적인 사업기공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김일성민족의 불굴의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의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나가야 합니다.》**

지난 10월 당대표자회정신을 받들고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작전을 펼

2. 8 직 동정년탄광 일군들의 사업에서

치는 탄광책임일군들의 생각은 깊었다. 그도그렇듯이 탄광의 전반적인 갱들에서 현행생산을 다그치면서 다음해생산준비를 잘하자면 해야 할 일이 많았던 것이다. 당정책의 요구대로 굴진속도를 앞세우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 기본굴진과 준비굴진에 의한 확보탄량을 더욱 높여야 하였고 계획하였던 벨트코베어수송선개건보수공사도 내밀어야 하였다.

일군들이 선차적으로 내세운 목표는 현행 석탄생산을 더욱 높이는것이였다. **《지금의 조건에서 석탄생산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도는 무엇인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일군들은 현장투쟁위원회에 모여 앉았다. 협의과정에 일군들은 전반적인 갱들에서 작업굴진에 역량을 집중하면 체량조건을 개선하여 얼마든지 석탄생산을 더 늘일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런데 전반적인 갱들에서 작업굴진을 앞세우자면 로력과 동발나무가 더 요구되

었다. 책임일군들은 당면한 작업굴진을 다그치는데서 제기된 로력문제를 풀기 위해 일군들에게 이렇게 호소하였다.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고 다음해생산준비를 다그치자면 우리 일군들이 한계 단위씩 맡고 막장에 들어가 탄부들의 열의를 발동하여 생산도 높이고 보다 혁신적인 방도를 찾아 중산의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

책임일군들의 이런 전투적인 호소에 호응하여 탄광의 당, 행정, 근로단체일군들이 한결같이 떨쳐나섰다. 다음날부터 전투장터에서는 힘있는 화신식당사업이 벌어지고 체량장들에서 더 요구되는 동발나무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이 타올랐다. 탄광의 일군들은 체량준비를 맡고 막장에 들어가 작업굴진을 내밀기 위한 지휘를 기동적으로 하는 한편 지상단위의 로력을 동원하여 더 요구되는 동발나무를 운반하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리었다. 그리하여 9갱, 12갱을 비롯한 전반적인 갱들에서 체량장조건이 개선되고 작업굴진실적이 높아진 결과 탄광적인 석탄생산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게 되었다. **《지난 11월 중순 어느날 새벽이었다. 청년갱의 한 체량막장에서 뜻하지 않게 물이 쏟아져나왔다.》**

다른 갱에서 전투를 지휘하던 탄광의 초급당비서와 기사장이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다. 막장은 물에 반쯤 잠겼고 언제 또 어떤 정황이 발생할지에 예측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이래로 물러선다면 높이 내세운 목표를 완수할 수 없었다. 탄광일군들은 지체없이 막장에 차오르는 물을 뿔어내고 체량장을 복구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하였다. 그 노력전의 앞장에 일군들이 섰다. **《일군들과 탄부들이 한마음한 뜻이 되어 물결로써 열어나갔 매였다.》** 이들이 마주섰던 바리면이 울릴지언정 많은 양의 물과 함께 버텨야 했다. 그리하여 9갱, 12갱을 비롯한 전반적인 갱들에서 체량장조건이 개선되고 작업굴진실적이 높아진 결과 탄광적인 석탄생산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게 되었다.

나왔다. 위험은 계속 뒤따랐고 난관도 많았다. 하지만 이들은 끝끝내 막장을 다시 살리려고 중산의 뜻을 높이 살리었다. **《이렇듯 일군들이 탄부들과 고락을 같이하면서 계속혁신의 한길로 내달리기에 탄광에서는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고 다음해전투를 본뜬대고 내밀기 위하여 내세운 목표들이 성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지난 11월말까지 탄광에서는 많은 예비체량장을 마련하여 다음해전투를 힘있게 다그칠수 있는 전방을 열어놓았다. 또한 2단계 개발구역에서 새로 조업한 갱의 생산능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다음해부터 석탄생산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는 그릇한 토대를 갖추고있다. 탄광에 펼쳐지는 자랑찬 현실은 일군들이 계속혁신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머리를 쓰고 혁신적으로 일해나갈 때 좋은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사기자 강명천

모든 힘을 겨울철 석탄생산으로

뜻깊은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요즘 석탄생산을 더욱 높이는것은 탄광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석탄생산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당대표자회정신을 받들고 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높이고있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고 다음해전투를 본뜬대고 내밀기 위하여 내세운 목표들이 성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지난 11월말까지 탄광에서는 많은 예비체량장을 마련하여 다음해전투를 힘있게 다그칠수 있는 전방을 열어놓았다. 또한 2단계 개발구역에서 새로 조업한 갱의 생산능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다음해부터 석탄생산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는 그릇한 토대를 갖추고있다. 탄광에 펼쳐지는 자랑찬 현실은 일군들이 계속혁신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머리를 쓰고 혁신적으로 일해나갈 때 좋은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수송선, 전자운반로선편리를 잘하여 전자와 탄차들의 이동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석탄생산을 높이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자체로 풀어나가며 체량장을 더욱 높여 다음해 생산준비를 빈틈없이 하여야 한다.》**

국가계획위원회를 비롯한 경제지도기관들과 련관부문의 부장단위들에서는 탄광들에 설비와 자재, 후방물자를 책임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치밀하게 해나가야 한다. **《금속공업부문, 립업부문에서는 탄광들에서 날로 늘어나는 철강재와 동발나무요구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며 철도운수 부문에서는 수송조직을 짜고들어 석탄생산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 후방물자를 실은 열차들이 제때에 탄전에 들어서도록 하여야 한다.》**

탄광지회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 각기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지하막장에서 헌신분투하는 탄부들이 석탄생산을 일대 혁신을 일으키도록 탄광을 계속 힘있게 지원하여야 한다. **《석탄공업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탄부들은 뜻깊은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총동원력을 힘있게 벌려 겨울철 석탄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탄광지회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 각기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지하막장에서 헌신분투하는 탄부들이 석탄생산을 일대 혁신을 일으키도록 탄광을 계속 힘있게 지원하여야 한다. **《석탄공업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탄부들은 뜻깊은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총동원력을 힘있게 벌려 겨울철 석탄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남양탄광 7갱 김철수고속도굴진소대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탄광들에서 석탄생산을 정상화하려면 무엇보다도 굴진과 박툼을 확고히 앞세워야 합니다.》**

여기는 남양탄광 7갱 김철수고속도굴진소대 막장이자. 지금 여기서는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해 펼쳐나선 소대의 굴진공들이 탄광의 생산능력향상을 위해 과감한 공격전을 벌리고있다. **《전 교대가 두 팔로써 댄다.》**

《그 친구들이 우리 교대를 앞서겠다고 승벽을 부리는 데 우리는 그들보다 더 앞서나가야지. 각도보장은 넘버라고 착암기유지만 잘해 주게.》

이렇게 말하며 착암기를 으스스리째 틀어잡고 작업을 다그치는 굴진공들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다. 착암공들이 신바람나서 일순을 다그칠 때 그들의 등뒤에서는 탄차들이 연방 자리바꿈을 한다. 눈감박할 사이에 뒤에 섰던 또 한대의 탄차가 버럭부지러 다가간다.

아마도 천공작업과 버럭치리작업을 하는 굴진공들사이에도 경음이 벌어지는 듯싶다. **《당대표자회를 맞으며 년간 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우리 소**

대에서는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대호상간, 굴진공들호상간 사회주의경쟁을 벌리고있습니다.》

얼마후 착암공들이 압박에서 착암기의 정대를 뿔어내고는 두손가락을 펼쳐준다. 전날의 착암시간보다 2분을 단축했다는 신소라고 교대장이 귀띔을 한다. **《버럭치리를 맡은 탄부들에게 다가선 착암공들이 《이번엔 우리가 앞섰네.》라고 말을 건네며 두팔을 걷고 버럭치리작업을 도와나신다.》**

앞서거나뒤서지니 경쟁을 벌려다가도 일단 자기들이 맡은 작업을 끝내면 넉일, 내일이 따로없이 힘과 지혜를 합쳐가는 이들의 투쟁모습이 정겹게 어려운다. **《이순교 막장을 돌아보면서 발과눈비행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본 교대장이 힘차게 구령을 친다.》**

《발라!》 잠시후 둔중한 발소리까지 울린다. 굴진공들의 열광과다에 혁신의 기쁨이 한껏 어린다. 교대작업이 시작되면 얼마 안되어 첫 팔파를 한 자랑을 안고 굴진공들은 또 다시 자리를 차고 막장으로 달려간다.

막장이 쏠는다. 탄차들이 틀어지고 착암기들의 고르르운 동음이 울린다. 탄광의 생산전망을 열기 위한 굴진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해 소대원들은 진군속도를 더욱 높이고있다. **본사기자**

탄부의 위훈은 무엇으로 빛나는가

봉천탄광 일군들과 탄부들의 투쟁

뜻깊은 올해에 탄광에서는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혁신1갱, 혁신2갱, 봉천갱을 비롯한 탄광의 대부분 갱들에서 지난 10월까지의 기간에 갱내 물을 치료하기 위한 전투를 힘있게 벌려 체량역량을 심부로 이동전개함으로써 많은 예비체량장을 마련하였다. 이 나날 탄광에서는 수천m에 달하는 전자운반로선을 개건하고 전자와 압축기, 권양기를 비롯한 많은 설비를 현상대로 복구해냈으며 석탄중산에 이바지하는 기술혁신안들도 수없이 창안도입하였다.

그 하나하나의 성과마다에는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고조전투에서 자신들이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진군속도를 높여온 일군들과 탄부들의 애국충정이 엿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4대선행부문의 로동모습은 경제강국건설의 최후방, 개척자로서의 높은 책임감을 지니고 대고조의 앞장에서 승리의 불길높이를 힘있게 열어나가야 합니다.》**

자연은 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에게 석탄중산으로의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 주요개소에도 역량이 높은 볼프들을 집중배치하여 막장에 차오른 물을 끊임없이 뿔어내려고 하여 체량역량이 절로 형성되지 않았다. 물을 뿔어낸 뒤로는 이물사를 버릴 때 마다 이들의 전진을 가로막았다. 어떤 때에

는 버럭과 함께 물에 젖은 석탄이 100여m의 운반로선을 딱 매울 때도 있었다. 이런 경우 탄차들을 이끈 전자들도 이물새없이 거기에 달려들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순간도 전진을 멈추지 않았다. 이들은 화력발전소들과 금속, 화학, 경공업공장들에 질풍을 석탄을 더 많이 보내주라고 호소한 공동구호를 외치며 쓰러졌다가도 자기를 이 맡은 임무는 거기에 수행해야 한다는 투철한 각오를 안고 다시 일어나 막장을 복구했고 레우이설전투, 동발나무를 드리는 작업을 동시에 내밀며 체량역량을 심부로 전개해나갔다.

지난 8월 어느날이었다. 봉천갱과 그 주변의 갱들에 예상치 않게 물이 범람했다. 원인은 주변의 산에서 사슴치며 내려오는 비물이 로천의 어느 한굴로 쏠리면서 막장으로 흘러드는 데 있었다. 지체없이 물막이공사를 조직하여야 하였다. 그런데 탄전의 하늘을 뒤덮었던 막장구름은 일시 걷히었지만 날이 날수록 계속 신기슭을 따라 밀려내려오는 조건에서 물이 많이 드는 물막이공사를 벌리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그렇다고 확고되도록 신부의 체량구역이 물에 도다신 정체가 하는것은 절대로 허용할수 없었다. 자연의 이런 팽팽속에서 갱들의 설비를 출리기 위한 긴급투쟁을 조직하며 책임일군들은 물막이공사를 벌릴 때 마다 작전을 펼치었다. 일군들은 자체보장

사업을 앞세우고 탄부들과 함께 물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면서 물막이구간의 콘크리트기공 전투를 개시하였다. 이들의 모습은 천천을 쫓아내고 만물을 보충하는 자비를 높이고 불굴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며 신념의 연계를 산악같이 떠 올리고있는 화력발전소 군인건설자들의 영웅적인 투쟁모습을 방불케 하였다. 물막이전투는 마감단계에 이르면서 더욱 간고해졌다. 일군들과 탄부들은 사정없이 뛰어다닌다. 이물막이 배수로를 넘어서면 어깨성을 쌓으면서 콘크리트기공을 중단없이 내밀었다. 결과 불과 10일 남짓한 기간에 물막이구간에 대한 콘크리트기공을 끝내고 생산능력확장공사에 조성되었던 난관을 극복할수 있었다. 이번 불침몰의 의지와 신념을 지닌 일군들과 탄부들의 투쟁속에 탄광의 능력확장공사는 지금 마감단계에서 즉각 추진되고있다.

우리는 탄광의 석탄중산을 위하여 레우이설전투를 벌리고 대중적기술혁신으로 석탄운반능력을 높이며 이바지한 운반갱과 지상단위의 로동자들의 투쟁이야기를 다 전하지 못한다. 그러나 수천척 지하막장에서 누가 알아지 못할것인지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헌신적인 투쟁을 벌리고있는 이들의 위훈은 오늘도 대고조전투장마다에 비약의 승격을 더해주고있다. 그렇다. 탄부의 위훈은 높고 장엄한 투쟁으로 빛난다. **본사기자**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하여 석탄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안주시구탄광연합기업소 화동탄광에서— 김진명 찍음

탄광설비부속품생산에서 혁신

개천탄광기계공장에서

당창건 65돐을 맞으며 년간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앞당겨 완수한 개천탄광기계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탄광설비부속품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계획수행기간 공장의 일군들은 한계 단위씩 내걸고 나간 것이 신장력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 끌어다가면서 생산성과 지위를 비롯하여 제반조건, 가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탄

광들에 탄차와 조구, 전자부속품을 비롯한 주요설비부속품과 막장조기구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보내주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공장에서는 새로운 작업방법들과 기술혁신안을 창안도입하기 위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계속 힘있게 벌리고있다.》**

물결대원들은 공장의 경영활동을 개선하며 석탄생산을 높이는 데 절실히 필요한 수습적인 새 기술혁신안을 제기하고 그 수행을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로동동원 최계학**

인민에 대한 참된 복무관점을 심어주어 인재들 중시해야 실적이 높아진다

인민에 대한 참된 복무관점을 심어주어

만경대복공장은 구역적으로 일 잘하는 단위, 전투력있는 단위로 소문이 자자하다. 창립후 오늘까지 공장이 생산계획을 꼭꼭 수행해왔다는 사실이 그 중증으로 된다. 하지만 그보다도 생산된 제품들에 대한 사람들의 일정한 평가는 공장의 자랑으로 자평으로 되고있다. **《절종고 땀이 맺는 제품, 《기호에 꼭 맞는 제품》...》**

하더면 이 단위가 인민의 사랑받는 공장으로 불려올수 있게 된 비결은 무엇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군들은 어떤 초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인민들의 행복과 리상을 꾀아우는데서 삶의 가치와 보람을 찾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야 합니다.》**

8월 3일인민소비품인 어린이옷생산전투로 공장이 붉고있던 몇달만의 일이다. **《어느날 공장의 일군들은 걸린 문제를 풀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 앉았다. 협의가 시작되는데 문득 초급당비서 최정숙동무가 옷의 후수를 더 늘리자는것을 제기하였다.》**

《옷의 후수까지?》 누구나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생산도 긴장한데 메지표에 따르는 옷의 후수까지 늘이라고 하였으니 그럴만도 하겠다. 일군들의 심증을 헤아려본 초

급당일군은 자기가 목격하였던 하나의 사실을 들려주었다. **《미칠것 초급당비서가 어느 한 백화점에 갔던적이 있었다. 일감이 많은 그가 모든것을 뒤집어 놓고 그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목적이 있다.》** **《생산된 제품들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공장에서 만든 어린이옷들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비교적 좋았다. 그런데 한 어린이의 어머니만은 아쉬운 표정을 짓는 것이었다. 왜 그런가고 물으니 딸에게 입혀야 되겠는데 옷이 좀 짧으니 좋다는 것이었다. 알고보니 그가 요구하는 후수의 옷이 없었던 것이다.》

《그 요구자가 다행히 우리 자신이었다고 생각해보자. 초급당일군의 이야기는 길지 않았다. 그러나 일군들에게 준여운은 컸다. 납득이 갔고 대책이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모인 일함자들이 똑같이 공감된것은 아니었다. 일부 일군들속에서 생산이 꼭 떨어질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었다.》

물론 그들의 의견도 리해는 되었다. 그렇다고 하여 인민의 리익과 관련된 문제를 양보할수는 없었다. 협의가 끝난 후 초급당일군은 지체없이 제복2작업반에 나섰다. 생산자대중의 심정속에 불을 달기 위해서였다. 제복공들의 일손을 도우면서 그들은 우선 다량생산을 물린 어린이옷 한벌을 만드는데 드는 시간을 따져보았다. 그런 다음

어느 한 기능공에게 파업을 주어 한 호수가 큰 어린이옷을 만들어보게 하였다. **《동무들! 신심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한 호수가 큰 어린이옷을 만들어 만들어보았는데 기계에 드는 시간이 불과 몇분밖에 더 걸리지 않았습다. 문제는 정성에 있습니다. 전후 처리마대고조시대의 영웅들처럼 일한다면 얼마든지 생산을 보장할수 있습니다.》** **《생산은 결실하면 한다는 해명으로 다시한번 혁신의 한길로 즐겁게 뛰어들다.》**

《우리에게 파업을 주십시오!》 **《무조건 해내겠습니다.》** 격성과 열정이 진행된 초급당일군의 정치사업과 그에 호응하는 제복공들의 열렬한 대답이었다. **《이렇게 되어 공장에서는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는 다양한 후수의 옷제품들이 더 많이 생산되게 되었다.》**

《이번에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일군들에게 있어서 사고와 실천의 기준은 오직 인민의 리익에 있다는것을 말입니다.》 **《생산일면에만 치우쳐 수요자들의 심정을 외면하면 하였던 일부 일군들의 자책의 목소리였다.》**

참으로 생산자가 아니라 수요자의 입장에서 서서 모든 일을 설계하고 전개해나가고있는 이 공장 초급당일군과 일군들의 사업은 반환을 안다. **본사기자 전경서**

기술자들의 창조적능력이 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기술혁명적목표실현에서 남김없이 발휘되도록 당적지도를 짜고들어 성과를 거두고있는 해주기초식품공장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이 주목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과학과 기술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게 복무하는 인재들입니다.》**

최근년간 공장에서는 생산공정을 현대적으로 개조하고 CNC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장의 질을 훨씬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수입명의 기술자, 기능공들이 국가발달과 새 기술도입을 하였으며 창의고안, 합리화안들을 창안하여 내놓았다.》**

또한 50여종의 소금발을 건설하고 전자호흡소스공생산방법을 받아들여 소금을 자체로 생산함으로써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게 하였다. **《이것은 초급당위원회가 인재를 중시하여 높은 실적을 낼수 있다는 혁신적인 관점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기술혁명적목표를 현실성있게 세우고 기술자, 기능공들과의 사업을 방법론있게 진행해온 과정에 이룩된 자랑한 결실이다.》**

2측압출성기를 받아들일 때 대한 문제를 토의하는 협의가 열렸을 때였다.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기술자, 기능공들

인재를 중시해야 실적이 높아진다

해주기초식품공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이 혁신적인 안이라고 인정은 하면서도 《내가 하겠소.》라고 말이나기기를 주저하고있었다. 그만큼 기술적으로 복잡한 문제점을 안고있었던 것이다. 이것을 제때에 포착한 초급당비서 오진공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그 어디서나 요구되는 것은 석탄이다. 우리 공장에서 석탄매출로 생산이 활성화되지 못하고있다.》** **《지난 시기 우리는 중차기술대신 압출성형 기술을 받아들여본 경험이 있지 않잖나. 나는 우리 공장기술자들이 다시한번 분발하여 지혜를 합친다면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본다.》**

이날 회의는 기술자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해준 좋은 계기로 되었다. **《실비부원 신평공동무를 비롯한 기술자들과 3대혁명조신들을 당당한 1, 15기기술혁신돌격대가 조직되었다.》**

당조직의 믿음은 새겨안은 기술자들은 3대혁명조신과 과학연구기관과의 긴밀한 관계에 수습차원의 협의회를 거쳐 설계를 완성하였다. 하지만 처음 해보는 일이다보니 제작할 때 실적이 따라오지 않았다. **《그러자 기술자들속에서 주저하는 기색이 나타났다.》**

이 기술혁신과제를 생산활성화의 운명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인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과도들과의 사업을 맡고있는 사업으로 전환시켜나갔다.

해주기초식품공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원장기사 리명철동무가 설계의 원인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을 때 그의 곁에 있으면서 《조수》가 되어준 사람이 바로 초급당비서였다. **《설계의 원인을 분석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기술도사도 가져다주고 진동함의 치차를 교체할수 있는 새로운 착상도 원형을 초급당일군, 주저않을새라.》** **《힘들게 할때 절음결을 손잡이 이끌어주는 당일군의 진정에 고무된 그는 끝내 진동함의 치차를 생장사치차로 설계하는데 성공공로를 했다.》**

이것을 목격한 기술자들은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할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고 달려붙었다. 중차기술대신 2측압출성형기가 도입됨으로써 생산성은 원료의 전처리공정에서 석탄을 전혀 쓰지 않고 기계적인 방법으로 원료를 가공하면서도 맛 좋고 영양가 높은 기초식품을 출제하게 되었다. **《당조직의 믿음을 새겨안은 기술자들은 3대혁명조신과 과학연구기관과의 긴밀한 관계에 수습차원의 협의회를 거쳐 설계를 완성하였다.》** **《하지만 처음 해보는 일이다보니 제작할 때 실적이 따라오지 않았다.》**

그러자 기술자들속에서 주저하는 기색이 나타났다. **《이 기술혁신과제를 생산활성화의 운명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인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과도들과의 사업을 맡고있는 사업으로 전환시켜나갔다.》**

해주기초식품공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이 혁신적인 안이라고 인정은 하면서도 《내가 하겠소.》라고 말이나기기를 주저하고있었다. 그만큼 기술적으로 복잡한 문제점을 안고있었던 것이다. 이것을 제때에 포착한 초급당비서 오진공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그 어디서나 요구되는 것은 석탄이다. 우리 공장에서 석탄매출로 생산이 활성화되지 못하고있다.》** **《지난 시기 우리는 중차기술대신 압출성형 기술을 받아들여본 경험이 있지 않잖나. 나는 우리 공장기술자들이 다시한번 분발하여 지혜를 합친다면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본다.》**

이날 회의는 기술자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해준 좋은 계기로 되었다. **《실비부원 신평공동무를 비롯한 기술자들과 3대혁명조신들을 당당한 1, 15기기술혁신돌격대가 조직되었다.》**

당조직의 믿음은 새겨안은 기술자들은 3대혁명조신과 과학연구기관과의 긴밀한 관계에 수습차원의 협의회를 거쳐 설계를 완성하였다. 하지만 처음 해보는 일이다보니 제작할 때 실적이 따라오지 않았다. **《그러자 기술자들속에서 주저하는 기색이 나타났다.》**

이 기술혁신과제를 생산활성화의 운명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인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과도들과의 사업을 맡고있는 사업으로 전환시켜나갔다.

해주기초식품공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원장기사 리명철동무가 설계의 원인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을 때 그의 곁에 있으면서 《조수》가 되어준 사람이 바로 초급당비서였다. **《설계의 원인을 분석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기술도사도 가져다주고 진동함의 치차를 교체할수 있는 새로운 착상도 원형을 초급당일군, 주저않을새라.》** **《힘들게 할때 절음결을 손잡이 이끌어주는 당일군의 진정에 고무된 그는 끝내 진동함의 치차를 생장사치차로 설계하는데 성공공로를 했다.》**

이것을 목격한 기술자들은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할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고 달려붙었다. 중차기술대신 2측압출성형기가 도입됨으로써 생산성은 원료의 전처리공정에서 석탄을 전혀 쓰지 않고 기계적인 방법으로 원료를 가공하면서도 맛 좋고 영양가 높은 기초식품을 출제하게 되었다. **《당조직의 믿음을 새겨안은 기술자들은 3대혁명조신과 과학연구기관과의 긴밀한 관계에 수습차원의 협의회를 거쳐 설계를 완성하였다.》** **《하지만 처음 해보는 일이다보니 제작할 때 실적이 따라오지 않았다.》**

그러자 기술자들속에서 주저하는 기색이 나타났다. **《이 기술혁신과제를 생산활성화의 운명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인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과도들과의 사업을 맡고있는 사업으로 전환시켜나갔다.》**

이 기술혁신과제를 생산활성화의 운명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인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과도들과의 사업을 맡고있는 사업으로 전환시켜나갔다.

외세와의 공조는 반민족적인 범죄행위

력사적인 6.15 공동선언에 천명된 우리민족끼리리념은 외세와의 공조를 배격하고 민족공조를 실현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민족공조는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이 있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 공동의 번영을 이룩해나갈수 있는 담보가 있다. 북과 남이 우리민족끼리리념에 따라 민족공조를 이룩하는것은 6.15 통일시대의 요구이며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그러나 시대의 요구와 겨레의 지향에 역행하는 남조선의 반통일세력들은 민족공조를 한사코 거부하고 외세와 공조하여 북남관계를 파괴해로 몰아가면서 조국통일을 가로막고있다. 그들은 외세와의 핵공조, 전쟁공조, 《인권》공조책동에 악랄하게 매달리는것으로 북남관계개선과 긴장완화를 위한 우리의 선의와 진지한 노력에 도전해나서고있다. 민족공조를 반대하면서 외세와 공조하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반민족적인 대결전쟁위태에 필적이 없다.

남조선보수당국은 미국이 벌리는 반공화국공조의 돌격대로 나서고있다. 그들이 외세와 작당하여 반공화국핵소용을 미친듯이 벌리는것은 일지도 않는 북의 《핵위협》을 고에 걸고 우리를 무장해제시키며 나아가서 반공화국군인살상야망을 실현해보려는 범죄적기도의 발로이다.

우리에 대한 극도의 적대적에 사로잡혀있는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눈만 뜨면 그 무슨 《북핵문제에서의 긴밀한 공조》와 《북핵폐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에 대해 떠벌리며 미국과

의 핵공조에 적극 나서고있다. 외세의 반공화국핵소용에 발벗고나설으로써 우리에게 대한 국제적인 압력을 더한층 강화하고 북남관계를 전면적인 파괴에 몰아가며 외세의 힘을 빌어 반공화국인살상기도를 어떻게 하나 실현하자는 것이 바로 리명박정권이 벌리는 외세와의 핵공조책동의 진목적이다.

우리는 미국의 제속되는 핵위협에 대처하여 조국과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전민족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핵억제력을 보유하고있다. 이로 하여 조산반대 투쟁을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고있다.

사실이 이리함에도 불구하고 모략적인 《핵위협》설을 내뿜고 외세와 공모결탁하여 반공화국핵소용에 피는 이 되고있는 남조선보수세력들이아말로 겨레의 존엄과 리익을 팔아먹으면서 민족의 자주적언명개척의 길을 가로막고 조국통일위업을 해치는 민족반역의 무리들이다.

남조선당국은 조산반대의 평화를 위협하고 북침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외세와의 전쟁공조에도 기승을 부리고있다. 남조선당국이 추구하는 외세와의 전쟁공조는 본질에 있어서 북침공조이다. 파괴전쟁공조는 얼마전 미국과 《년례안보협의회》라는것을 벌려놓고 《유사시》 조산반대에 방대한 미군무력을 증파하며 남조선에 재래식무력과 핵무기를 비롯한 모든 개병의 전쟁수단을 다 들이밀며 대한 범죄적의도를 보였다. 파괴군부가 미국과 함께 《작전계획 5029》를 비롯하여 그

누구의 《급변사태》에 대처한 도발적인 북침전쟁계획들을 면밀히 구민대기초하여 미국과 함께 대규모적인 합동군사연습을 편이여 감행하고있는것은 위협천만하기 짝이 없다. 남조선보수세력이 미국과의 군사공조가 그 무슨 《전쟁억제》를 위한것이니, 《평화와 안정》을 위한것이니 하고 떠벌이는것은 저들의 호전적정체를 가리우고 북침전쟁도발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꾀변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과의 공조로 조산반대의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겨레의 머리아구 핵전쟁의 재난을 몰아오는 남조선보수세력의 책동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외세와 작당하여 벌리는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 《인권》소용도 날로 더욱 악랄해지고있다.

남조선보수세력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일부 불순세력들과 야합하여 모략적인 반공화국 《인권》소용을 미친듯이 벌려면서 우리 공화국의 영상을 깎아내리고 북남대결을 더한층 격화시키기 위해 피는이 되고있다. 얼마전 남조선당국은 유엔에서 외세와 함께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모략적인 《북인권리의안》을 공동제안한데 이 그에 서슴없이 지지표를 던지는 당용을 부리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한 용납 못할 정치적도발이며 외세의 힘을 빌어 우리의 사상과 체제를 말살하고 민족의 운명을 해치고 조국통일의를 방해하는 추악한 반역집단을 절대로 용납치 않을것이다.

한 철 준

대하면서 외세에 더욱 의존하고 그와 공조를 갈수록 강화하고있는 본성은 불보듯 뻔하다.

6.15 통일시대의 요구와 민족의 지향을 거스르며 미국과 반역, 파소독재를 일삼고있는것으로 하여 남조선집권세력은 민심을 잃었으며 통치기반은 뒤흔들리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친미사태와 반통일, 전쟁도발책동에 미쳐 들어가는 집권세력을 그대로 두어서는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념원은 언제 가도 실현될수 없다고 하면서 그들의 퇴진을 요구하고있다. 집권세력에 대한 분노로 사무치는 남조선인심이 대중적인 반 《경부》투쟁의 불길로 타탄되는것은 이진문제이다. 극도의 통치위기에 처한 보수집권세력은 외세의 유살에 더욱 바싹 매달리면서 그와 공조하여 기울어져가는 저들의 운명을 건지며 북침야망을 어떻게 하나 실현해보려고 모지름을 쓰고있는것이다.

남조선집권세력이 극악한 친미사태에 국행위로 상전의 환심을 사고 그와 공조하는것으로 저들의 더러운 정치적목적 을 실현할수 있으리라고 타산한다면 그 보다 더 어리석은 상상은 없다. 나라와 민족을 등지고 제국주의자들의 하수인이 되어 동족과의 정치군사적대결에 미쳐남는자들에게는 결코 알았이 없다.

우리 겨레는 동족과는 대결하고 침략적인 외세와는 공모결탁하면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해치고 조국통일의를 방해하는 추악한 반역집단을 절대로 용납치 않을것이다.

한 철 준

주체의 사회주의조국과 더불어 영원히 빛날 혁명업적

재우즈베끼스판동포들 기념모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조산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1986년 8월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93돐에 즈음하여 7일 재우즈베끼스판동포들이 기념모임을 가지었다.

모임에는 조순애 6.15 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독립국가혁명배적화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일꾼들과 재우즈베끼스판동포들이 참가하였다.

우즈베끼스판주체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초대되었다.

모임에서 발언자들은 12월 24일은 경애하는 김정은장군님을 조산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력사적인 날이며 항일의 녀성영웅인 김정숙어머님께서

탄생하신 뜻깊은 날이라고 말씀하셨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조산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으로써 조산인민군의 존엄과 지위는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게 되었다고 그들은 강력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를 혁명의 전투력을 지닌 일당대의 명장군으로 강화발전시키셨다고 하면서는 나라가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된데 대해 격찬하였다.

오늘 조산반도에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으로 하여 첨예한 대결상태가 조성되었다고 하면서 그들은 만일 호전세력이 공화국의 하늘과 땅, 바다를 단 한치라도 침범한

다면 조산인민군은 강력한 타격으로 침략의 아성을 짓밟아버릴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그들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뜻을 받들어 조국해방과 새 조국건설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었다고 하면서 어머님의 념원을 조국방어에 인민의 나라를 건설하는것이였다고 말하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혁명업적은 주체의 사회주의조국과 더불어 영원히 빛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행사장에 전시된 사진과 도서, 선전물들을 돌아보았다.

이날 예술공연이 있었다.

대교조시대를 빛내어나가는 조국의 청년들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의 반향

총련세대일군대표단 단장인 김일웅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위훈을 떨쳐가고있는 조국청년들의 투쟁은 자기들에게 고무적 힘을 안겨주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체류기간 우리는 많은것을 보고 느꼈다. 그가운데서 제일 인상깊은것은 청년들의 모습이었다. 조국청년들은 당의 부름이러면 산악도 떠돌고 기상을 안고 즐기는 투쟁을 벌이고있다. 가장 어렵고 힘든 곳에는 청년들이 서있다. 그들은 앞장서서 전진의 돌풍을 일으키고있다.

청년들은 최전 2호방전선전선상에서 혁명적근신성, 결사관철의 정신을 발휘하여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그

것으로 하여 건설장은 불도기 나마냥 뚫어지고있다. 군인건설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새로운 친리마속도, 최전속도가 창조되었다.

《청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충하자!》는 구호만 보아도 그들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잘 알수 있다.

대동강과수종합농장, 원산청년발전소를 비롯한 기념비적창조물들마다에 조국청년들의 자랑찬 위훈이 아로새겨져있다. 조국청년들은 대교조시대를 빛내어나가고있다.

최첨단과학전선에서 그들은 기수가 되었다.

청년과학자들은 비사한 각오와 애국의 열정을 안고 최첨단을 돌파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전개하고있다.

미국, 일본, 남조선괴뢰들의 군사적결탁과 전쟁책동을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을것이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대변인담화

최근 미국과 일본, 남조선괴뢰들은 조산반도정세를 건설로 반공화국군사적결탁과 전쟁책동을 그 어느때보다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합심침몰사건과 연평도포격사건을 구실로 조산동해와 서해에 항공모함까지 들이밀어 괴뢰들과 최대규모의 연합훈련을 강화하였을뿐아니라 조산반도연습구역에서 일본과도 공동군사연습을 벌려놓고 남조선괴뢰군과 함께 《자위대》편제자들을 교환, 참관시키고있다.

지난 10월 부산앞바다에서는 일본해상부대의 참가하에 침략적인 《대형상륙부대확산방지구상》에 따르는 해상훈련이 진행되었다.

미합동참모회의 의장 말린은 지난 9일 일본방위상과의 회담에서 남조선과 일본이 과거문제를 초월하여 미국, 일본, 남조선 3자련합훈련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한편 일본수상 간 나오토가 얼마전 《일본인보》라는 구실로 조산반도유사시 일본 《자위대》편제를 공언하는 등 오세 체질야망을 포괄적으로 드러냈는가 하면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에 일본이 참가하는 문제와 유사시 3자공동군사행동을 위한 움직임이 적극 추진되고있다.

미국과 일본, 남조선괴뢰들 사이에 해방과 접촉, 모의들이 빈번해지는 속에 며칠전 워싱턴에서 열린 3자외무장관회의에서는 일미안전보장조약과 남조선 미국 《호상방위조약》에 기초한 《서로의 책임》과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이것은 미국, 일본, 남조선 괴뢰들이 미국의 군사적결탁과 3각군사동맹구축책동이 엄중한 단계에 이르렀다는것을 보여 주고있다.

미국과 일본, 남조선괴뢰들이 조산반도정세를 구실로 침략적결탁과 3각군사동맹구축책동을 강화하고있는것은 그들이 합심침몰사건과 연평도포격사건을 도발한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것을 더욱 뚜렷이 반증해준다.

이번 사태를 통하여 미제와 추로도 일본, 남조선사이의 군사적연동체제와 3각군사동맹이 이미 현실화되어 가동하고 있다는것이 그대로 드러났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위협적 결탁은 조산반도와 지역정세를 더욱 첨예화시키고 새로운 군비경쟁을 몰아오며 세계적범위에서 전쟁위기를 한층 심화시켰다.

지금 파괴전쟁공조는 제 2의 연평도포격을 도발해보려고 우리의 거들되는 경계에도 불구하고 이 일대에서 또다시 포사

콩크리트장벽은 당장 해체되어야 한다

체스꼬단체들 인터넷에 올린 글

체스꼬단체사상연구 및 구원소와 백두산체스꼬조선전선협회가 7일 인터넷공동홈페이지 《조선-백두산》에 《철근 콘크리트장벽》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같은 조산반도에 분열과 대결의 상징인 콩크리트장벽이 구축된 때로부터 31년이 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미국이 비호하여 남조선당국이 구축한 콩크리트장벽의 길이는 240여km나 된다.

장벽건설에 세멘트만도 80여만톤이 동원되었다. 조산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미 오래전에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고 북남사이의 자유로운来往의 문을 열기 위하여 콩크리트장벽을 해체할것을 요구하였다.

세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콩크리트장벽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영구분열책동의 산물이다.

세계에 널리 알려진바와 같이

위협 전만 한 남조선의 《KBS》 방송에 의하면 파괴군부가 18일부터 21일사이 연평도에서 또 한차례의 해상사격훈련을 벌려줬다고 공표하였다.

괴뢰전쟁공조는 이번 사격훈련이 《방어》를 위한것이라더니, 《주기적이며 통상적인 훈련》이러느니 뭐니 하고 떠들면서 위협전만 한 전쟁불장난소용을 극구 합리화해

해상사격훈련 계획 공표

나오갔다.

호전공조는 도발적인 해상사격훈련에 대한 내외의 강력한 항의규탄의 목소리를 녹였다고 그 후파에 대한 책임을 모면할 심산인데 《참판》의 명목으로 괴뢰도발들을 초창하는 놀음도 벌린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 각계는 연평도에서의 해상사격훈련이 제 2의 연평도포격사건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될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북을 자극하고 정세를 긴장시키는 전쟁연습계획을 당장 걸어치울것을 요구 하고있다.

이번 연평도에서의 발표는 조산반도에서 새 전쟁의 불침을 일으키려는 괴뢰전쟁공조의 망동이 새로운 위협한 단계에 들어서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본사기자

조선반도 평화실현을 주장

남조선의 진보전대, 민주로총,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청년들이 11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조선반도평화실현을 주장하는 집회를 가졌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지금 당국이 정세긴장을 구실로 국방예산을 지날때마다 대륙 놀이로 《자위권》이니 뭐니 하며 북과의 군사적대결을 고위하고있는데 대해 비난하였다.

연평도사건이 발발하게 된 근본원인은 조선산에서 안전지대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만일 당국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창설할때 대해 명시한 10.4선언을 철저히 리행 하였더라면 이번 사태가 빚어지지 않았을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그들은 당국이 전쟁을 방치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것을 요구하여 적극 투쟁할것이라고 밝혔다.

집회참가자들은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10.4선언 리행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남조선 농민들의 농민협동조합을 반대

농민들의 생활현안이 날로 어려워지고있는데 대해 언급하고 그들은 당국이 4대강정비공사에 들부으려는 예산을 농민들에 대한 지원에 돌려야 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조선중앙통신】

4 대강정비공사중지를 요구

남조선의 천추고성구원전선단체들이 13일 서울의 《국회》청사앞에서 《미사》를 가지고 4대강정비공사를 당장 중지할것을 피뢰당국에 요구하였다.

단체는 리명박 《정부》가 4대강정비공사로 자연을 파괴하고 농민들을 삶의 터전에서 쫓아내고 있다고 규탄하였다.

공사중지를 요구하여 기도회, 초분투등 등을 벌려줬지만 지난 8일 《정부》가 《국회》가 끝날때 4대강정

비공사에 대한 강행처리하겠다고 단언한 단죄하였다.

단체는 앞으로 공사중지를 위한 투쟁과 반역 《정권》퇴진 운동을 더욱 강도높이 벌려나갈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

남조선괴뢰침략이 13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범민련) 남측본부 조직위원장 김세창을 체포하였다. 파소독침은 그가 지난해 5월 괴뢰정보연앞에서 진행된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참가하였다 하여 이러한 폭

범민련 남측본부 핵심성원을 체포

거를 강행하였다.

남조선괴뢰당국은 지난 1일 같은 혐의로 권진국장 최동진을 체포하고 얼마전에는 연평도포격사건과 관련한 범민련 남측본부 《조선중앙통신》

과소경찰

부의 문명을 문세시하면서의 장리규에에게 경찰에 출두할것을 강박하는 등 단체핵심성원들에 대한 탄압에 열을 올리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남조선 괴뢰정부는 연평도사건의 평화적해결을 요구하는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비상사국외의》를 걸고들고 반전평화투쟁을 벌리는 단체들을 《친북세력》이라고 악의에 차서 혐몰으면서 《보안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꾀변을 늘어놓았다.

이뿐이 아니다. 《국인일보》, 《세계일보》, 《문화일보》 등 보도를 비롯한 남조선군부호전공조에 대해 《크게 기대한다.》느니, 《행동으로 판별하기 바란다.》느니 하며 불는 불에 키질하는 당용을 부리었다.

가소로온것은 이미 력사의 심판을 받고 정치송장이 된자들까지 나서서 대결과 전쟁열을 고취하고있는 사실이다.

리희정역요는 연평도포격사건에 대해 《북의 도발》이라고 악랄하게 떠들어댔고 김중필역요는 《속대발》으로 만들어야 했다는느니 뭐니 하는 악의에 찬 말발을 서슴없이 내뱉었다.

한편 《인권위원회》페기리들은 《대북방랑종교 전담살포지 원권고안》이라는것을 통과시켜 파괴군부가 반공화국모략방공의 계기에 나서도록 부추기었다.

하다면 보수세력이 무엇보다도 그렇듯 불맛은 송자지마냥 날뛰면서 전례없는 대결정풍을 일으키고있는가 하는것이다.

남조선 괴뢰정부는 연평도사건의 평화적해결을 요구하는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비상사국외의》를 걸고들고 반전평화투쟁을 벌리는 단체들을 《친북세력》이라고 악의에 차서 혐몰으면서 《보안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꾀변을 늘어놓았다.

이뿐이 아니다. 《국인일보》, 《세계일보》, 《문화일보》 등 보도를 비롯한 남조선군부호전공조에 대해 《크게 기대한다.》느니, 《행동으로 판별하기 바란다.》느니 하며 불는 불에 키질하는 당용을 부리었다.

가소로온것은 이미 력사의 심판을 받고 정치송장이 된자들까지 나서서 대결과 전쟁열을 고취하고있는 사실이다.

리희정역요는 연평도포격사건에 대해 《북의 도발》이라고 악랄하게 떠들어댔고 김중필역요는 《속대발》으로 만들어야 했다는느니 뭐니 하는 악의에 찬 말발을 서슴없이 내뱉었다.

한편 《인권위원회》페기리들은 《대북방랑종교 전담살포지 원권고안》이라는것을 통과시켜 파괴군부가 반공화국모략방공의 계기에 나서도록 부추기었다.

하다면 보수세력이 무엇보다도 그렇듯 불맛은 송자지마냥 날뛰면서 전례없는 대결정풍을 일으키고있는가 하는것이다.



비정규직폐쇄투쟁을 벌리는 남조선노동자들

광기를 띠는 대결선동

평화를 바라는 민심의 지향과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며 외세와 작당하여 군사적도발과 전쟁연습소용을 벌려놓고있는 남조선괴뢰의 무분별한 책동에 의하여 조산반도정세는 그야말로 폭발전야에 있다. 남조선당국의 광란적인 전쟁도발책동을 부추기고있는것이 다름아닌 보수언론들과 국우반동세력이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중앙일보》를 비롯한 국우보수언론들은 저마다 피대를 두구며 매달고 같이 대결선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이것들은 우리 공화국을 터무니없이 위협하면서 그 무슨 《보부》이니 뭐니 하고 군부세력에 호전적판기를 북돋아주고있다.

얼마전에도 《조선일보》는 《군사적대응이 단호해야 한다.》는 등의 악당들의 지면을 어지럽히며 우리의 군사적대결을 선동하였다. 《중앙일보》도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남조선과 미국, 일본의 침략《동맹》강화할것을 극구 찬양하면서 그 누구의 《도발》에 맞서 《정당한 공조를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란다.》고 황성수설하였다.

《동아일보》는 연평도사건의 평화적해결을 요구하는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비상사국외의》를 걸고들고 반전평화투쟁을 벌리는 단체들을 《친북세력》이라고 악의에 차서 혐몰으면서 《보안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꾀변을 늘어놓았다.

이뿐이 아니다. 《국인일보》, 《세계일보》, 《문화일보》 등 보도를 비롯한 남조선군부호전공조에 대해 《크게 기대한다.》느니, 《행동으로 판별하기 바란다.》느니 하며 불는 불에 키질하는 당용을 부리었다.

가소로온것은 이미 력사의 심판을 받고 정치송장이 된자들까지 나서서 대결과 전쟁열을 고취하고있는 사실이다.

리희정역요는 연평도포격사건에 대해 《북의 도발》이라고 악랄하게 떠들어댔고 김중필역요는 《속대발》으로 만들어야 했다는느니 뭐니 하는 악의에 찬 말발을 서슴없이 내뱉었다.

한편 《인권위원회》페기리들은 《대북방랑종교 전담살포지 원권고안》이라는것을 통과시켜 파괴군부가 반공화국모략방공의 계기에 나서도록 부추기었다.

하다면 보수세력이 무엇보다도 그렇듯 불맛은 송자지마냥 날뛰면서 전례없는 대결정풍을 일으키고있는가 하는것이다.

《법치》의 간판아래 만연되는 범죄행위

지금까지 남조선보수세력은 시가 더욱 만연되어 커다란 사회적질거리로 되고있는것을 잘 알기이다.

남조선이 온갖 시기와 협잡, 살인과 폭력이 판을 치고 돈이 모돈을 지배하며 페페페이 성행하는 범죄의 땅이라는것은 공인된 사실이다. 남조선에서 얼마전에도 《연세살인사건》과 같은 일에 울리기조차 끔찍한 특대형살인범죄행위를 꼬리째 물고 일어나 사람들이 놀래했다.

문제는 남조선인민들을 구도의 불안속에 몰아넣고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게 하는 범죄행위들을 주장, 만연시키고 그에 못지 않은 범죄를 직접 지르지는 장본인이 다름아닌 법관을 집행하는자들이라는것이다.

남조선경찰당국이 경찰들의 업무성적을 법원검거실적으로 평가하는 《실적주의》를 도입한것을 놓고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경찰은 경찰거리, 경찰서는 경찰사거리 《실적주의》에 매달리다보니 실적을 못낸 경찰서들에서는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수사까지 벌어지고 있다. 얼마전 서울의 양천경찰서에서 형사들이 무고한 사람들에게

남조선 괴뢰정부는 연평도사건의 평화적해결을 요구하는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비상사국외의》를 걸고들고 반전평화투쟁을 벌리는 단체들을 《친북세력》이라고 악의에 차서 혐몰으면서 《보안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꾀변을 늘어놓았다.

이뿐이 아니다. 《국인일보》, 《세계일보》, 《문화일보》 등 보도를 비롯한 남조선군부호전공조에 대해 《크게 기대한다.》느니, 《행동으로 판별하기 바란다.》느니 하며 불는 불에 키질하는 당용을 부리었다.

가소로온것은 이미 력사의 심판을 받고 정치송장이 된자들까지 나서서 대결과 전쟁열을 고취하고있는 사실이다.

리희정역요는 연평도포격사건에 대해 《북의 도발》이라고 악랄하게 떠들어댔고 김중필역요는 《속대발》으로 만들어야 했다는느니 뭐니 하는 악의에 찬 말발을 서슴없이 내뱉었다.

한편 《인권위원회》페기리들은 《대북방랑종교 전담살포지 원권고안》이라는것을 통과시켜 파괴군부가 반공화국모략방공의 계기에 나서도록 부추기었다.

하다면 보수세력이 무엇보다도 그렇듯 불맛은 송자지마냥 날뛰면서 전례없는 대결정풍을 일으키고있는가 하는것이다.

바빠맞은 경찰당국은 《경찰관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없는 일 이 벌어졌다.》느니, 《자백을 받기 위해 너무나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느니 하는따위의 변명을 늘어놓는 한편 《보안법을 강구》한다고 자랑을 피뢰내고있다. 하지만 그것은 막대한 궁지에서 헤어나기 위한 기만행위일뿐이다.

개뢰도 살인가도 죽고 못되고 세살치버터 먹든지 간다고 회령리의 악습이 어떻게 버릴수 있었는가. 경찰청장이라는자가 《실적주의는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느니 뭐니 하며 그것을 앞으로 계속 적용할 의사를 내비친것은 그것을 잘 보여주었다. 구도들의 개인리기주의와 약속강식의 승냥이법칙이 지배하는 썩어빠진 남조선사회에서는 각종 범죄행위가 성행할수밖에 없다. 이런 판국에 범죄의 투쟁에 나서야 할 경찰까지 지부속을 환장하여 죄없는 사람들을 범죄자로 몰아내고 그것을 당국 이 제도적으로 적극 조장, 부추기고있으니 어떻게 범죄현상이 근절될수 있겠는가.

경찰관이 아니다. 검찰당국의 처사도 마찬가지이다. 편이 이 터져나오는 집권세력의 권력형부패행위들은 못 본척 눈감아주는 반면에 자주, 민주, 통일을 념원하는 애국적단체들과 인민들은 악명높은 《보안법》을 휘두르며 죄 아닌 《죄》를 들씌워 청창속에 끌어가듯이 다름아닌 남조선의 검찰페기리들이다. 이런 속에서 세 계 세상을 만만찮게 털놓는것이 범죄자들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바로 보수세력이 《법치》와 《법정사학법》에 대해 그토록 기염을 트하며 내놓는 남조선의 현 실태이다. 이런 썩어빠진 반인민적인 사회에서 어떻게 인민들이 하루라도 마음편히 살수 있겠는가.

지금 남조선집권세력이 아무리 《자유민주주의체제》니, 《법치》니 하며 남조선에 어떤 자유민주주의가 있는듯이 오만스럽게 광고해도 인간의 존엄은 고사하고 초보적인 사회에서 어떻게 인민들이 하루라도 마음편히 살수 있겠는가. 이런 현실은 결코 감출수 없다.

본사기자 심 철 열

